

자성의 중생심 먼저 제도해야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衆生無邊誓願度



법산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대승보살의 네 가지 큰 서원 가운데 첫째는 '가없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이다.

이 세상에 생명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렇지만 어느 생명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두가 다 자기의 지은 습관적 업에 따라 과보를 받으며 괴로움에 고통 받고 있지만 본성은 하나 같이 맑고 깨끗하여 부처님의 성품과 차별이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붓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서 마음에 덮여 있던 무명의 어리석은 옷을 벗어버리는 깨달음의 순간 모든 생명이 가진 본래의 성품이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맑고 깨끗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일체 중생은 모두가 평등하게 반야의 밝은 지혜를 지니고 있다는 실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데 다만 각자의 청정한 마음이 대상인 여러 가지 환경에 물들어 밝은 지혜의 체성을 가리고 번뇌 망상이 되어 잘 못된 일을 저지르게 되고 잘 못된 판단으로 갖가지 행위가 습관적으로 반복되면서 어리석음의 업으로 잘 못된 과보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생명들의 괴로움을 보고 측은한 마음 즉 대자대비의 마음을 일으켜 그들을 괴로움에서 건져내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이것이 바로 일체 중생을 괴로움의 바다에서 다 건져내겠다는 서원이다. 이 서원은 곧 부처님의 원력이요, 부처님을 믿고 수행하는 보살과 모든 불제자의 서원이다.

부처님은 본래 생로병사의 괴로움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큰 원력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출가를 단행하였고, 극기의 고행을 수행하여 괴로움의 원인을 깨닫고 즐거움의 세계를 증득하는 길을 터득하고 80평생을 중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경전의 말씀은 모두가 괴로움의 번민에서 벗어나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즉 열반·해탈의 길이다. 이것은 모두가 중생의 병을 치료하여 건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처방전이다.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도 환자가 믿고 의사의 처방을 따라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의 병은 절대 치유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진리에 합당한 좋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의미를 알고 실천해야 한다.

중생무번서원도 즉 '중생을 다 건지 오리다.' 하는 것은 먼저 서원을 세우는 신행적 다짐이며 대승적 사회정화의 원력이다. 그러나 자성중생서원도 즉 '자성의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하는 것은 자기 자성의 개혁적 실천 수행이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시어 수행하신 것은 먼저 자성의 개혁이었다. 자성의 개혁은 곧 전식

득지(轉識得智) 즉 인식의 전환을 통한 지혜의 체득이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를 개혁하지 못하는 이상 남을 제도한다는 것은 사뭇 허상이요 망언일 따름이다.

남을 도운다고 할 때 내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 있어야 한다. 내 스스로도 나의 마음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면서 고집과 아만 그리고 탐욕과 성냄에 자유롭지 못한 어리석음에 끌려가고 있으면서 무엇으로 남을 제도하겠다는 것인가? 먼저 참회하는 수행을 실천하면서 사후서원의 원력을 다져보자.

〈육조단경〉에 혜능조사가 대중들에게 잡회를 하게 한 후 사후서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중생무번서원도'는 곧 '자성중생무번서원(自心?生無邊誓願度)'라는 것을 간절히 밝히고 있다.

"선지식들이여! 중생이 무변하지만 서원코 제도하리라 하는 것은 혜능이 제도하는 것이 아니다. 선지식들이여! 마음속의 중생이란, 말하자면 사뭇고 어리석은 마음, 미치거나 망령된 마음, 착하지 않은 마음, 질투하는 마음, 악독한 마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마음이다 중생이냐. 각자가 반드시 자기의 성품을 스스로

지혜 체득한 밝은 마음이라야

정견으로 자비실천 사회정화 가능

로 제도해야 한다. 어떤 것을 자기의 성품을 스스로 제도한다고 하느냐? 즉 자기 마음 가운데 사뭇 견해와 번뇌가 어리석은 중생이나 바른(正見)을 가지고 제도해야 한다. 이미 정견이 있으니 반야의 지혜를 사용하여 어리석은 미망의 중생을 타파하여 각자가 스스로 제도하는 것이다. 사뭇된 것에는 정견으로 제도하고, 미혹에는 깨달음으로 제도하고, 어리석음은 지혜로 제도하고, 악은 선으로 제도하여 이와 같이 제도하는 것이 참된 제도라 이름하느니라."

여기에서 내 마음의 중생심이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행심인 번뇌와 망상을 스스로 제거하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남을 제거하기는커녕 자기 하나도 제도하지 못하는 중생의 꼴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중생무번서원도의 서원은 자기 자성의 중생을 반드시 제도하겠다는 견고한 신념이다. 이 신심이 견고하지 못하면 나머지 세 서원을 성취할 수 없다. 자성의 반야의 지혜로써 헛된 생각을 제거하고, 반드시 자기의 성품을 깨달아 항상 정법을 실천하고, 항상 하심(下心)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된 진리를 실현하게 되면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불자의 염원인 사후서원의 실현은 각자의 수행을 통한 습관적 인식의 전환에서 체득되는 반야지혜의 밝은 마음이라야 가능할 것이다.



업 아닌 번뇌 제거가 열반의 길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煩惱無盡誓願斷



안성두
서울대 철학과

어느 불교법회에서나 불자들은 네 가지 큰 서원을 되새기며 법회를 마친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서원이 '번뇌무진서원'이다. 그 의미는 다할 수 없이 많은 번뇌를 영원히 소멸시키기를 서원한다는 것이라. 아마 불자라면 이 서원을 암송하면서 번뇌가 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제거해야만 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번뇌를 소멸시켜야 하는지를 자문했을 것이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문제를 조금 상세히 다루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먼저 번뇌란 무엇인가에 다른 것에 앞서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지를 보자. 번뇌란 단적으로 말해 마음의 부정적인 작용이다. 우리는 때 잘나 무엇인가를 느끼고, 생각하고, 욕구하고, 지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런 심리적 과정에서 마음을 염오시키는 모든 부정적인 심리적인 의식작용들을 총괄해서 '번뇌'라고 부른다. 따라서 번뇌에는 인지적 요소뿐 아니라 정서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붓다의 최초의 설법으로 여겨지는 〈조전법륜경〉에서 이미 번뇌가 핵심적인 윤회의 원인으로서 간주되고 있음을 본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교설인 사성제에서 갈애가 고통의 원인으로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

통찰 수행으로 탐진치 백팔번뇌 극복

아라한 된 앙굴리말라의 해탈이 모델

아가 12지 연기설에서도 무명은 모든 것의 일차적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여기서 갈애란 '탐'의 동의어이며, 무명이란 '치'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번뇌가 불교에서 일차적인 윤회의 원인으로서 간주된 것일까? 우리를 고통에 빠지게 하는 다른 핵심적인 요소들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생노병사가 고통이라면 우리를 생노병사로 이끄는 업이 보다 중요한 원인이고, 따라서 이를 제거하는 것이 보다 관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도 생길 것이다.

하지만 나는 고통의 소멸로서의 열반의 증득이 업의 제거가 아니라 번뇌의 제거를 통해 가능하다고 설했다는 점에 바로 불교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한다. 세존께서 활동하셨던 무렵 당시 인도의 바라문이나 비불교 사문들은 의례나 고행을 통해서 무수한 전생을 거쳐 축적된 업이 정화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열반의 성취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무한한 과거세에서 축적된 업의 전적인 정화가 실제로 가능할지는 의심스러울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유명한 앙굴리말라의 스토리일 것이다. 앙굴리말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세존의 제자가 된 후에 마침내 번뇌가 제거된 아라한이 되었단 인물이다. 만일 업의 정화를 통해서 열반의 증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앙굴리말라와 같은 살인자에게는 그

럴 기회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앙굴리말라는 그의 마음을 청정하게 함에 의해 고통과 재생으로부터 해탈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불교에서는 현재의 심작용의 관찰과 컨트롤에 핵심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업은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형성시킨 힘이고, 또 현재와 미래의 행위에 있어서도 울타리를 치고 조건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선악과 같은 현재의 심작용의 도덕적 성질을 결정하는 힘을 갖고 있다고 결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생명체로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과거의 업에 의해 발사된 첫 번째 화살을 모두 피해 갈 방법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함으로써 욕망과 증오, 무지에 의해 투사된 두 번째와 세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는 것이며, 바로 여기에 수행의 존재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얼마나 많은 번뇌를 제거해야 하는지를 보자. 초기불교 이래 번뇌의 다양한 측면을 탐·진·치의 세 가지로 요약해서 부르기도 하지만, 번뇌가 가진 중요성 때문에 이를 세분해서 분류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108 번뇌설인데, 여기서 유신견과 번진견, 邪見, 견취, 계급취, 탐욕, 미움, 무명, 자만, 의심이라는 10종의 근본번뇌가 사성제 및 삼계와 함께 기본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삼계로 윤회하는 것은 이들 10종 번뇌에 의해 사성제에 대해 미혹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들 번뇌는 앞의 5종의 인지적 번뇌와 뒤의 5종의 정서적 번뇌로서 다시 구분되는데, 이는 우리가 세계에 대해 인지적 방식과 정서적 방식 모두의 측면에서 미혹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자아의식(=有身見)이다. 자아의식이 있는 한, 우리는 세계의 중심에 언제나 자아를 설정할 것이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자아중심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다. 이것이 무아의 반대로서 공성의 통찰에 의해 극복되어야 할 가장 큰 장애로서 간주되고 있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근본주의와 관련하여 견취에 대한 불교의 분석도 흥미로운 것이다. 불교는 자신의 견해를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관점에 대한 취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종교적 도그마이든 간에 절대화하는 순간 그것은 자신의 관념의 절대화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임진년에 들어 부디 이런 자기비판적 성찰이 모두에게 공유되어 우리 사회가 정신적으로 한걸음씩 성숙해 지길 바라는 것이 단지 나의 헛된 꿈일까?

보살사상 만일결사

大韓佛教 曹溪宗 金剛禪院

선원장 헤거

법회일정안내

- 금강경 수요경전법회
- 화엄경 금요경전법회
- 선하불교대학
- 성인기초참선
- 청소년기초참선

www.geumgang.org , cafe.daum.net/sunmoontemple/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3 삼우빌딩 405호 ☎ 02)445-8484

용성진중 조사 탄생성지·백두대간중심지

장안산하 죽림정사 (竹林精舍)

조 실	불심도문	주 지	지광 법륜
총 감	월암	총 무	법장
교 무	법현	사무국장	김규준

백용성조사 유훈신행회
지도법사 불심도문

법사: 지광 법륜, 향운 환희, 해운 금장, 혜력, 유수, 법장, 월암, 법현

초 대 회 장	최대성자
초 대 부 회 장	임대각심
초 대 고 문	화곡 서명원
고 문	대광 유종혁
고 문	보련화 인강자
화 주	도보련화
제 2 대 회 장	김원일화
제 3 대 회 장	백정혜일
제 4 대 회 장	한수승행
부 회 장	김원음주
사 무 국 장	정광 박사록

전북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 252번지 일대 ☎ (063) 353-0103 Fax (063) 353-8500

사성제는 부처님 가르침의 뿌리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法門無量誓願學



백광식
국제포교사회장

새해 설날(음력 1월 8일)이 부처님께서 새벽별을 보며 깨치신 성도절이다.

2500 여 년 전, 신달타는 왕국의 쾌락을 버리고 극단의 고행을 했으나 깨달을 수 없었다. 거의 죽음을 이룰 즈음, 수자타의 우유죽을 받아 마셔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네란자라 강에서 목욕을 한 후, 우유죽을 담았던 금바루를 강물에 던지며, "내가 부처가 될 것이면 이 바루가 강물을 거스르지아다"라고 하니 과연 바루는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갔다.

"내 몸이 다 닳아 없어지고, 피가 마를지라도,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깨달음을 얻지 않고는 이 자리를 뜨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보드거야의 피팔라 나무 아래 동쪽을 향해 좌정한 태자는 새벽이 뜨는 새벽에 깨달음을 얻었다. "수많은 윤회를 겪으며, 집 짓는 자를 찾아 헤맸고, 드디어 윤회고통에 빠뜨린 집 짓는 자 너를 보았다. 서까래와 대들보는 산산이 부서져 이제 너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한다. 갈애를 멈추었고 마음은 생멸을 벗어났다." 실로 성을 넘어 출가한지 6 년만이다.

이 후 7주간 깊은 선정에서, 무명으로 인하여 생노사에 이르는 고집(苦集)의 유전연기를 순관(順觀)하고, 밝은 지혜로 생노사를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멸도(滅道)의 환멸연기를 역관(逆觀)했다. 부처님은 이렇게 고집멸도 네가지 성스러운 진리(사성제)를 투철했다.

부처님 최초설법은 기원 전 528년 사르나트의 녹야원에서 큰다사 등 5비구에게 행해졌다. 이른바 (초전법륜경)으로, 유익하지 않은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여의고, 여래가 실현한 중도 곧 8정도를 통해 깨달을 수 있음과 사성제를 말씀하셨다.

이보다 앞서, 5비구를 찾아 가는 중 마주친 아지비카(사명외도) '우파카'가 부처님의 빛나는 모습을 보고, "그대는 무엇을 발견했소?" 라고 물었고, 부처님은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며 부처요" 라고 답했다. 정확한 답변이었지만 번뇌에 가린 아만이 건드려져, "정말 깨달았을라? 아니겠지?" 라는 마음이 일어난 그는 씨의 비웃으며 지나가 버렸다. 법문을 이해할 사람이 없을까와 설법을 망설였던 부처님의 예상이 적중한 셈이다.

젊은 아사 등을 더해 60인의 비구승단이 된 때에 '뭇 생명의 안심과 행복을 위해,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은 법문'을 하도록 전도선언을 하고, 부처님께서 우루벨라로 향하신 후 45년간 길에서 길을 보이신 경울과, 후대에 해명을 이은 조사들의 논(論)이 경율론 삼장이고,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 이를 담고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에 회의하며, '인생의 보람과 행복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다가도, 이내 일상 속에 이질표 없이 떠밀려 다닌다.

불타는 별판 성난 코끼리에 쫓기다가 겨우 매달린 낭떠러지의 칙녕클을 흰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쫓고 있다. 별집에서 떨어지는 끝에 취해, 칙녕클이 끊어지면 곧 바닥에 도사린 독사와 독룡의 밤이 될 것을 알고 사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너무나 다행하다. 인생이 고인지 알고 벗어나고자 하는 이는, 이미 앞서 부처님께서 열어 놓은 길을 쫓아 따라가면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근기와 상황에 따라 많은 법문을 설하셨고, 역대조사께서 또 많은 부연(敷衍)을 하였다. 한 권의 책에 모든 것이 담길 정도의 단순한 이웃종교와 달리 불교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나무가 아무리 무성해도 뿌리에서 근원하는 것, 뿌리만 잡고 있으면 모든 갈래가 한줄기로 꿰어진다.

'사성제에 전념하라' 부처님도 당부

팔만대장경에 의지 깨달음 이뤄야

서원 크면 아무리 힘든 일도 즐거워

설산동자의 구법서원을 본받자

그 뿌리가 사성제이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숲에 비유한다면, 초전법륜의 내용인 중도와 사성제는 숲속 한 나무 가지를 훑어 주먹 안에 들어온 나뭇잎 정도의 적은 량이다.

이를 실천 이유는 이익과 성스러운 삶의 향상을 가져오고, 열망(번뇌)을 잠재워 그치게 하며, 고요함(寂靜)과 직접적인 지식(證智)과 깨달음(等覺)과 열반(涅槃)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성제에 전념하도록 당부하셨다.

사홍서원은 사성제를 전념하는 것이니, 맹세코, 고의 진리를 전념해 고통 중생을 건지고, 집의 진리를 전념해 번뇌를 끊고, 열의 진리를 전념해 부처 되고, 도의 진리 곧 계정해를 전념해 법문을 다 배워야 한다.

사람보다 부처님 가르침, 말보다 뜻, 지식보다 지혜에 의지하고, 궁극에 이르는 경전에 의지해야 한다.

《범화경》 제14 안락행품에 서원안락행이라는 말이 있다. 서원이 크면, 아무리 힘든 일도 즐겁게 하게 된다. 맹세코 부처님의 한량없는 법문을 배우되 그 근본은 사성제로 그 안에 연기와 중도와 삼법인 나아가 팔만대장경이 모두 들어 있다. 한글세대에겐 한글경전이 어렵다면 영어경전을 보면 훨씬 명쾌하고 쉽다.

설산동자의 꿈을 버려 법을 구하는 서원을 본받을 일이다.



장님에게는 눈이 되어 주시고...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佛道無上誓願成



김광하
작은손길(삼륜의집) 대표

12월 초에 우리나라에 큰 경사가 있었다. 무역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르러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 된 것이다. 지난 1974년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 40여 년이 지나 무역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경제는 압축성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0년대 전쟁의 폐허에서 원조를 받은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불과 100년 전에는 왕조국가의 유산을 안고 일제식민통치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거의 선진국 수준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제도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뒤에 가려진 그늘 또한 깊게 깔려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인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2009년 한 해에 자살한 한국인은 모두 1만 5413명이었다. 이는 1년 전인 2008년(1만2858명)에 비해 약20% 늘어난 숫자이다. 하루 평균 4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노인과 청소년의 자살률도 해

"병자를 찾아가 간병한 일 있는가"

외로운 비구 "간병한 일 없습니다"

병자 돌보는 것은 나를 돌보는 것

이웃 고통에 동참 진리 알게해

마다 늘어나고 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지난 10년 간 해마다 평균 230여 명의 대학생들이 가난과 취업고로 자살을 하고 있다. 심리학자에 따르면, 자살을 하는 사람은 죽기 전에 끊임없이 주위 사람에게 자신의 고통을 표현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 극단적인 길을 택하고 마는 것이다. 무역규모 1조 달러, 세계정상을 누비는 스포츠와 음악, 그리고 전국 곳곳에 널려있는 종교시설, 활발한 NGO활동 등 눈부신 모습과는 달리 중산층이 무너지고 청소년과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국민의 58%가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절망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 양극단의 현상을 깊이 격정하지 않으면, 분열 자체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비정상적인 인격이 자라게 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무분별한 총기사고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노숙자 독거노인 새터민 이주노동자 등 어려운 이웃에 다가가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치료하는 길이기도 하다.

오늘 부처님이 옆에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경책을 받을까? 경전에 나오는 한 비구 이야기가 우리의 관심을 끈다. 한 비구가 병이 걸려 누웠다. 그 비구는 아파도 곁에서 간호해주는 비구가 없었다. 이윽고 고통을 이기지 못한 비구는 큰 소리로 자신의 고통을 호소

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소문을 들은 부처님이 이 비구를 찾았다. "간호하는 사람은 어디 있는가? 누가 와서 돌보아 주지 않는가?" 비구는 대답했다. "지금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아무도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 날 병들기 전에 그대는 병자를 찾아가 문병한 일이 있는가?" 그러자 비구는 대답했다. "병자들을 찾아가 문병한 일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바른 법을 들었지만, 그 안에서 좋은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문병하러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든 비구는 평소 이웃 비구가 아파도 문병을 가지 않는 그야말로 남에게는 인색하고 제 몸의 안락만을 추구했던 것이다. 마치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이윽고 일의 전말을 짐작하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비구여, 그대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직접 그대를 공양하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부처님은 병든 비구를 손수 간호하셨다. 경전은 부처님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세존께서는 손수 더러운 것들을 치우고 다시 좌구를 끼셨다. 또 그의 옷을 빨고 병든 비구를 부축해 앉히고, 깨끗한 물로 목욕시켰다. 그 비구를 목욕시킨 뒤에 평상 위에 앉히고 손수 밥을 먹여주셨다." 세존께서는 그 비구가 밥을 다 먹은 것을 살피시고는 발우를 치우고 곧 그에게 생노병사의 괴로움과 12연기 등 해탈의 진리를 가르치셨다. 그리고 비구들을 불러 모아 "병자를 돌보는 것은 나를 돌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였다. (《증일아함경》 제40권 구중생기품 요약)

아픈 비구를 보살피는 부처님을 보면 스승이러기보다 오랜 세월 같이 지낸 친구와 같다. 부처님은 아무도 보살피지 않는 사람의 벗이 되어 고통을 덜어주었으며, 마침내 생노병사에서 벗어나는 진리에 눈을 뜨게 해 주었던 것이다. 스승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다녔다. "여러분은 마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분은 건너지 못한 이를 건네주시며, 해탈하지 못한 이를 해탈하도록 길을 알려 주시고, 아무도 구해 주지 않는 사람을 보살피 주시며, 장님에게는 눈이 되어 주십니다." (《증일아함경》 제13권 24 고당품 요약) 절망에 빠진 이웃은 끊임없이 주위사람에게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고 마침내 진리를 알게 하는 일이 곧 위없는 불도를 이루는 길이 아닌가. 부처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하실 것 같다. "그대는 바른 법을 들었지만, 그 안에서 좋은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문병하러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2년 동국, 더 큰 희망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몸, 맑은 정신으로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동국 제2건학에 주시는 정성 더 큰 희망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dongguk UNIVERSITY

임진년 새해, 기도정진으로 지혜와 원력 가득한 한 해 되소서.

대한불교천태종

서울관문사

주 지 김영제 노 전 박인덕
총 무 광수산 부전거사 지상규
재 무 구성해

신도회장 장영일 외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 ☎ 02)3460-5300 전송 3460-5200
www.gwanmunsa.org